孝, 그림으로 이해하고 되새기다

기획전 K-ART Ⅶ '효(孝)를 말하다'
무우수갤러리 5월 5일부터 28일까지

기성작가 8명 청소년작가 20명 참여해
〈부모은중경〉 현대 감수성으로 표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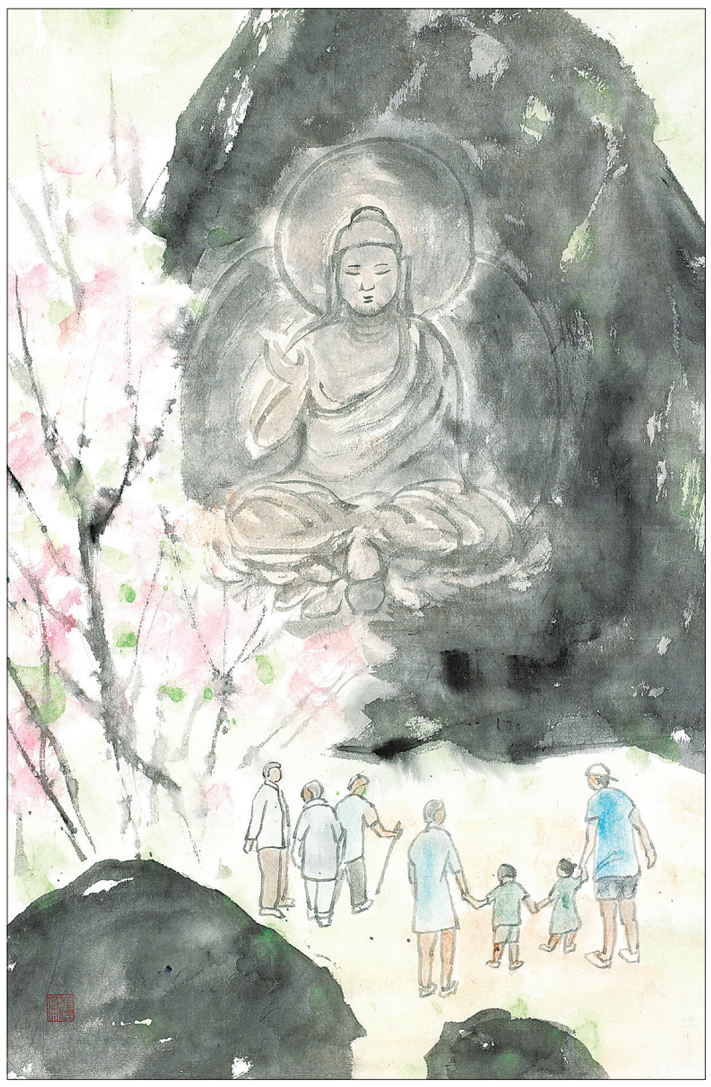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효(孝)를 주제로 한 전시가 열린다. 한국의 전통문화와 미술을 소개하고 장려하는 무우수갤러리가 5월 5일부터 28일까지 기획전 K-ART Ⅶ '효(孝)를 말하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기성작가 8명과 청소년 작가 20명이 참여해 우리 민족의 소중한 미덕인 효의 가치를 이해하고 되새기는 미술작품을 선보인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효를 '백행지본(百行之本)'이라 하여 모든 행동의 근본으로 생각했다. 조선시대에는 나라에서 유교를 바탕으로 삼감행실도를 그림으로 그려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효의 마음을 가르쳤고, 효자에게는 상을 주고 마을 입구에 효자비를 세워주기도 했다. 불교에서는 부모의 은혜가 한량없이 크고 깊음을 말하는 〈부모은중경(父母恩重經)〉을 출판해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고자 했다.

전시에서는 〈부모은중경〉의 내용을 현대적 감수성으로 그린 김선희 동국대학교 연구교수의 수묵채색화와 고려불화의 맥을 잇고 있는 조이락 작가의 창작 불화, 덕을 지닌 사람을 갓난아이에 비유한 노자의 〈도덕경〉 내용에서 착안한 경남대학교 김정란 조교수의 비단채색화, 돌아가신 어머니의 삶을 반추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새긴 김내혜 작가의 전각, 부모님의 결혼 60주년을 기념해 '회혼례'를 주제로 결혼과 부모자식간의 인연과 사랑을 표현한 정채희 작가의 옻칠화, 오스트리아 벨트 뮤지엄과 국립현대미술관(과천) 등 국내외 주요 미술관에서 한국의 민화를 선보이고 있는 문선영 작가의 창작 민화, 고희의 나이에 민화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화단에 등장한 선순애 작가의 '화성능행차도 병풍' 등이 소개된다.


김선희,新부모은중경, 가족,53x38

미술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일산중산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된다. 크기가 큰 신발 위로 점점 크기가 작은 신발을 올려놓은 안시후 학생의 그림은 어린아이가 칭얼대면 군말 없이 업어주셨던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제는 그 아이가 부모님을 업고 걸어가는 길을 그리고 있다. 김세연 학생의 그림은 수험생인 손녀에게 방해가 될까 먼저 전화하지 못할 정도로 자애로운 할머니를 떠올리며 그린 작품이다. 보고 싶은 자녀의 전화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수화기로 형상화한 김지원 학생의 그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큰 감동을 자아낸다. 갓난아기 때 입었던 배냇저고리와 물건들을 자신이 성장한 후에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부모님을 보며 부모님의 사랑과 기쁨의 크기를 알게 됐다는 노유라 학생의 그림과 부모님의 따뜻함과 체온이 향수처럼 스며들어 매 순간의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나윤서 학생의 그림은 부모님에게 입은 사랑에 대한 감사함과 고백이다.

전시를 기획한 무우수갤러리 양효주 학예실장은 "효 윤리는 궁극적으로 인간 사이의 소통과 존중을 중요시하는 철학"이라며 "이기주의와 인간소외가 만연한 오늘날,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다지고 코로나 시대에 파편화되었던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하남 동사지 출토 유물 '한 자리에'

'佛과 僧의 法을 세우다: 塔' 展
하남역사박물관 7월 23일까지

하남역사박물관은 4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佛(불)과 僧(승)의 法(법)을 세우다: 塔(탑)'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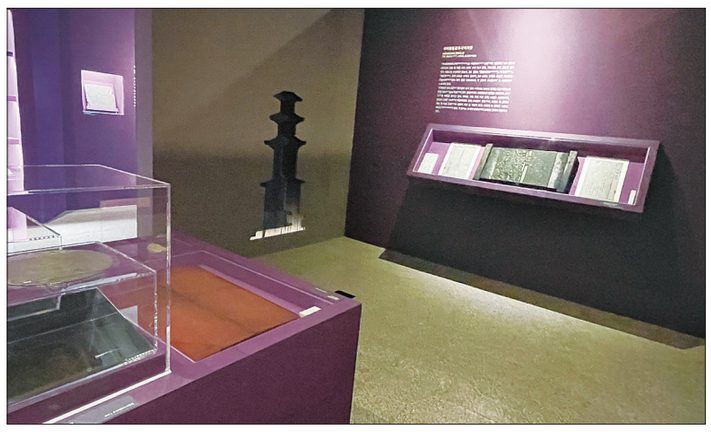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는 1963년 보물로 지정된 하남 동사지 삼층·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미디어 파사드로 재현한 동사지 삼층석탑과 관내 유적인 동사지, 천왕사지, 법화사지 등의 출토 유물, 석탑의 부재, 그리고 탑을 만드는 데 근거가 되었던 조탑경전 등 탑과 관련한 다양한 유물을 선보인다.

△1부 '탑을 세워 공덕을 쌓다'는 보물 동사지 석탑을 중심으로 천왕사지 청석탑, 여러 종류의 탑상문전, 그리고 탑을 세우는 공덕을 설명한 조탑경(造塔經)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장엄하여 부처를 공양(供養)하다'는 정토세계를 표현하기 위해 활용하는 불교 문양이나 상징 동물 등 사찰을 장엄하는 요소들을 소개한다.

△3부 '탑으로 부처를 사련(思戀)하다'는 탑 속에 안치하는 사리장엄구의 의미와 봉안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한다.

대표 유물로는 동사지에서 출토된 고려시대 금동석장이 있다. 현존하는 고려시대 석장의 수량이 많지 않고 특히 매장문화재로 발견된 예는 최초라고 할 수 있어 의미가 크다. 또한 탑의 조성에 관해 설한 '석씨원류응화사적 목판(보물)'은 탑의 조성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조선 후기의 뛰어난 목판 인쇄술을 엿볼 수 있으며, 다양한 기법으로 제작된 사리장엄구를 통해 당시의 뛰어난 기술력도 감상할 수 있다.


하남역사박물관 전시실 전경.

하남 동사지는 1991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1988년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가 건설될 당시, 동국대학교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진행됐다. 이때 금당 등 4곳의 건물터가 드러나고 금동불상, 기와 도자기, 동으로 만든 불기류 등이 출토됐다. 금당 터 동편에는 하남 동사지 삼층석탑(보물)과 하남 동사지 오층석탑(보물)이 나란히 서 있어 금당이 이 두 탑을 마주하고 남동향으로 배치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특별전은 불교 문화유산을 통한 하남시와 우리나라 전체의 우수한 건축 기술과 공예 수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의 계승과 문화사적 의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전시는 동사지 삼층·오층석탑의 보물 지정 60주년을 맞이해서 기획한 특별전으로 보물인 석탑에 대한 뜻과 하남시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돼 큰 의미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한 하남역사박물관은 우리의 자랑이라고 생각한다"며 "우수한 문화유산을 보유한 박물관에서 이러한 유물을 잘 가꾸고 보존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기에 앞으로도 꾸준한 지원을 통해 문화도시 하남의 위상에 걸맞게 발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자

발우공양 '가정의 달' 특별이벤트 진행

절식 제공·사찰음식 쿠킹클래스 열어



사찰음식 전문점 '발우공양'은 부처님오신날과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부처님오신날의 대표적 절식(節食)인 '볶은 검은콩'과 '봉축 기념 떡'을 방문고객 전원에게 제공한다. 과거에 염불을 하며 숫자를 헤아릴 때 썼던 검은콩에 소금을 넣고 볶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전통을 재현하기 위해 발우공양을 찾는 모든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더불어 우수 고객을 대상으로 '김지영 조리장과 함께하는 사찰음식 쿠킹클래스'도 진행한다. 이번 쿠킹클래스는 신선한 제철 식재료를 사용하여 봄메뉴 중 선호도가 높은 메뉴 3종을 선정해 가족단위 고객들을 대상으로 5월 21일 오전11시 사찰음식전문교육관 '향적세계'에서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발우공양 홈페이지 및 전화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24명 정원으로 선착순 마감되며, 참가비는 무료이다.

또한, 5월동안 발우공양 방문객을 대상으로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운의 뽑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행운권 추첨을 통해 '발우공양 식사권'을 비롯해 '템플스테이 기념품'도 제공한다.

한편, 발우공양은 한국 사찰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2009년부터 대한불교조계종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찰음식 전문 레스토랑으로 2017년, 2018년, 2019년 3년 연속 미쉐린 가이드 원스타를 획득한 바 있다. (02)733-2081.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잘난 척 불교 사자성어



윤창화 지음 | 224쪽 | 13,800원

불교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자성어 60개를
하루에 한 개씩, 두 달 동안 익힌다면 문해력 최고의 지식인!!
글자의 뜻과 의미, 그리고 삶의 지혜
불교사자성어 60개를 완전히 이해한다면 당신은 이미 지성인!

적습성성 (積習成性) "습관이 인간을 만든다"

습관이 오래 되면 천성이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 성품으로 굳어 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적습성성이라고 한다. 반복된 행동이 만드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문 중에-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